

# 딸각발이

##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8.27	조사자	이경재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딸각발이
-----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작가	이희승	출간연도	1952
내용	<p>‘딸각발이’란 것은 ‘남산(南山)골 샌님’의 별명이다. 왜 그런 별호(別號)가 생겼느냐 하면, 남산골 샌님은 지나 마르나 나막신을 신고 다녔으며, 마른 날은 나막신 굽이 굽은 땅에 부딪쳐서 딸각딸각 소리가 유난하였기 때문이다. (중략)</p> <p>인생으로서 한 고비가 겨워서 머리가 희끗희끗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변변하지 못한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 하지 못하고(그 시대에는 소위 양반으로서 벼슬 하나 얻어 하는 것이 유일한 욕망이요, 영광이요, 사업이요 목적이었던 것이다), 다른 일 특히 생업에는 아주 손방이어서, 아예 손을 댈 생각조차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구렁텅이에 빠져서 글자 그대로 삼순구식(三旬九食)의 비참한 생활을 해 가는 것이다. 그 꼬락서니라든지 차림차림이야 여간 장관이 아니다. (중략)</p> <p>겨울이 오니 뿔나무가 있을 리 만무하다. 동지 설상(雪上) 삼척 냉들에 변변하지도 못하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다리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곧아 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뽀뽀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쾌씼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하고 버르더란 이야기가 전하지마는,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각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사실로 족지마는 마음으로 안 저짜는 양심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결불을 안 쪼인다는 지조,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 신조였다.</p>		
평가	<p>이희승의 「딸각발이」는 국어학자로서도 이름이 높은 일석 이희승의 대표적인 수필이다. 조선 시대에도 서울(당시는 철저히 사대문안이 서울에 해당했다)은 대략 청계천을 기준으로 하여 북촌과 남촌이 갈라졌다. 이 중에서 벼슬이 있거나 돈이 있는 자들은 대부분 청계천 이북에 살았으며, 남산 기슭의 남촌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몰려 살았다. 이들은 비록 현실적인 힘은 없었을지 몰라도 정신적 힘은 대단했다. 본문에도 나오듯이, “예의”, “염치”, “인”, “의”, “의기”, “강직”, “자존심”, “지조” 등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히 한 자들이 바로 남산골 샌님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정신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온 근원적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필은 아수라장이 되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지탱하기 힘들었던 6.26 전쟁 중(1952)에 창작된 작품이다. 이희승은 아마도 도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당시에, 이 수필을 통해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자신을 향해서도 바로 딸각발이의 그 귀한 정신을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인지도 모른다.</p>		

## 2.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참고)

이름	이희승 (1897년 ~ 1989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97년 경기도 광주군 출생, 호는 일석(一石)</li> <li>- 1918년 중앙고등보통학교 졸업</li> <li>- 1930년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과 졸업</li> <li>- 19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취임, 조선어학회 간사 및 한글학회 이사 취임</li> <li>- 1934년 진단학회 가입</li> <li>- 1935년 조선어 표준어사정위원회 위원</li> <li>- 1940년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언어학 연구</li> <li>-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검거 된 후 8.15광복 때까지 복역</li> <li>- 1946-1961년 서울대학교 교수</li> <li>-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에 선임</li> <li>- 1963-1965년 동아일보사 사장, 한글학회 이사</li> <li>- 1966-1989년 국어학회 명예회장, 고문</li> <li>- 1969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옮겨 대학원장 등을 역임.</li> <li>- 1971-1981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소장</li> <li>- 1989년 숙환으로 별세</li> </ul>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8년 『역대조선문학정화 歷代朝鮮文學精華』 상권 간행</li> <li>- 1946년 『조선문학연구초 朝鮮文學研究鈔』, 『한글맞춤법강의』 간행.</li> <li>- 1947년 『조선어학논고 朝鮮語學論攷』 간행, 시집 『박꽃』 간행</li> <li>- 1949년 교과서 『초급국어 문법』 간행</li> <li>- 1956년 수필집 『병어리 냉가슴』 간행</li> <li>- 1957년 교과서 『새고등문법』 간행</li> <li>- 1961년 시집 『심장의 파편』 간행, 『국어대사전』 간행</li> <li>- 1964년 수필집 『소경의 잠꼬대』 간행</li> </ul>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7년 학술원공로상</li> <li>- 1960년 서울특별시교육공로상</li> <li>-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li> <li>- 1978년 인촌문화상</li> <li>- 198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li> </ul>	
기타사항	-	